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상설공연이 4월부터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를 선보인다. /광주문예회관 제공

다양한 현대 장르 담았다 ‘광주상설공연’ 정식 운영

광주국악상설공연서 명칭 변경

시립예술단 참여 목요일공연 신설

내달 1일 시립창극단 ‘사시장춘’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국악상설공연’이 ‘광주상설공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연 장르의 폭도 더 확대된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현재 진행 중인 ‘광주국악상설공연’을 ‘광주상설공연’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상설공연’은 기존의 ‘국악상설공연’을 유지하고 타 장르 시립예술단이 참여하는 ‘목요일상설공연’을 신설한 공연으로, 4월 준비를 거쳐 5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2019년 첫발을 댄 ‘광주국악상설공연’은 광주공연마루에서 ‘국악’을 주제로 출연단체별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여 왔다. 올해는 광주를 찾는 관람객들이 다양한 현대 장르를 포함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립예술단체와 민간예술단체가 ‘광주상설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상설공연은 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목요일상설공연’과 ‘국악상설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목요일상설공연’에서는 매주 목요일 교향악단·발레단·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4개 시립예술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현대장르 공연을 선보인다. ‘국악상설공연’은 매주 금·일요일 국악관현악단·창극단 2개 시립예술단체와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예술단체가 참여한다.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 22일까지 광주 소재 민간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3 광주국악상설공연 작품 공모’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에는 매주 수·일요일 4개 시립예술단체(발레단·합창단·국악관현악단·창극단) 및 민간예술단체가 선보이는 다채로운 장르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4월 첫 공연은 1일 시립창극단의 ‘사시장춘(四時長春)’을 주제로 열린다. 판소리 ‘수궁가’를 각색한 ‘토끼 이야기’,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창작무용 ‘초무’, 단막창극 ‘어사상봉’ 등을 감상할 수 있다.

20일에는 시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돈키호테’를 공연한다. 희극발레의 대명사 ‘돈키호테’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해설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27일에는 시립합창단이 ‘행복한 하모니’를 주제로 봄 가곡 독창과 우리민요 합창 등을 공연한다.

21일에는 국악창작그룹 ‘뮤르’가 기획공연 ‘달달콘서트’를 펼친다. 뮤르는 KBS 2TV ‘불후의 명곡’을 통해 이름을 알리며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룹이다. 이번 공연은 많은 사람에게 호평을 받은 곡들로 구성되며, 국악 관악기에 재즈를 접목한 ‘가리봉블루스’, ‘정신아리랑’, ‘서울의 달’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 4월 한 달간 11개 민간예술단체가 새로운 레퍼토리의 판소리·사물놀이·단막창극 등 다채로운 국악공연을 선사한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광주상설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월 1~2회 수준 높은 공연 팀을 초청해 특색 있는 기획공연과 특별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4월 한 달간 매주 수·일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리며, 모든 좌석은 무료다. 자세한 일정과 예매는 티켓링크,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나라 기자

소리꾼 장사익과 함께하는 전통무대

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공연

23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2023년 새해 첫 제 133회 정기연주회로 소리꾼 장사익과 함께하는 ‘전통과 현재의 공존’을 마련했다.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공연은 전통음악이 가지는 의미와 이를 바탕으로 전통음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채워진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최원록이 지휘봉을 잡는 이번 공연은 빠르고 힘찬 선율의 관현악 합주곡 ‘춤추는 바다’를 시작으로 피리 이종대 명인이 함께하는 ‘창부타령 주제에 의한 협주곡’을 비롯해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장사익의 히트곡인 ‘짚레꽃’, ‘꽃구경’, ‘꿈꾸는 세상’ 등이 펼쳐진다.

‘춤추는 바다’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3호 부산 기장 오구굿음악을 소재로 2017년 초연 작이다. 장단과 선율의 지속적인 반복으로 굿의 제의성과 신명성을 나타냈고 초월적인 세계를 그리고자 관악기의 반복적이며 빠르고 힘찬 선율들로 채웠다. 곡의 중간에 느리고 부드러운 선율들은 자연의 원초성과 신비성을 표현한다.

‘창부타령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은 서울 지방 무가(巫歌)의 하나인 창부타령을 협주곡 형식으로 편곡한 작품이다. 음악이 좁은 피리로 써 다양한 전조와 변청기락의 손 짙는 법을 바꿔가며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젊은 국악인들의 모임인 우리 소리바라지와 함께 타악 협주곡 ‘무취타’ 등을 선보인다. ‘무취타’는 무속가락으로 불고 친다는 뜻



우리 소리 바라지



장사익

으로 사람이 살면서 늘 부대끼는 기쁨과 슬픔, 분노와 즐거움의 네 감정을 표현한 타악곡이다. 경기와 진도지방의 무속장단을 활용한 화·로·애·락의 4악장 형식이다.



이종대

티켓 가격은 R석 2만 원, A석 1만 원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공연 관련 문의는 전화(062-415-5403)로 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대여·전시

국립현대미술관이 21일부터 미술은행 소장품을 무상으로 대여·전시하는 ‘2023 나눔미술은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나눔미술은행’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이 2019년부터 진행해 온 예술 나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전국 문화소외지역에 미술은행 소장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작품 운송료·보험료·감상자료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정부미술은행 소장품까지 합쳐 약 200여점을 전국 문화기반시설과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전시 또는 대여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21일 경남 거창문화센터에서 ‘내

가 Green(그린) 그림’ 기획전시를 연다.

경기 수원 누림아트 갤러리, 인천 연수 아트플러그 연수, 서울 송파 구립 예술미술관, 충남 아산 온양민속박물관 등지에서 전시를 이어간다.

경북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충북 충주성심학교, 강원 화천 풍익초, 전북 고창 희망샘학교, 대전 중구 대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소장품을 대여할 예정이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기관들과의 활발한 협업으로 본 사업을 더 활성화해 문화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YWCA ‘그린 봄 장날’ 22~23일 향토식품 등 판매

광주YWCA가 22~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동 광주YWCA 회관 1층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광주YWCA 그린 봄 장날’을 개최한다. 품목은 김치·향토식품·각종 젓갈·생활용품·의류, 그리고 웰빙식품(한우, 보성녹두, 된장, 청국장, 찜아찌류 등)이다.

광주YWCA는 지난 1980년 우리농산물새벽장터를 시작으로 Y장날을 43여년간 진행했다. 이번 봄 장날은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수익금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